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2(676~694)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와 사회 · 경제적 특성 –충청북도를 대상지역으로–

김민영* · 류연택**

요약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적별로 지역적 분포를 분석한 후,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시·군별 국적별 지역적 분포, 이주과정,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와 관련해서는 특화계수를 이용하여 범주화 하였고, 충북 지역에 대해서는 토마스법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대표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초국가주의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이주가 발생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두 사회가 하나의 사회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국가를 벗어나는 초국경적 현상을 설명하는 점에서 세계화 개념과 유사하지만, 이민자들에게 내재된 사회·공간적 구조, 사회 네트워크의 국제적 분산, 초국가적 정체성, 문화적 혼성화 등을 다루는데 유용하다.

주요어 : 국제결혼이주여성, 다문화사회, 세계화, 국제이주, 신자유주의, 문화적 혼성화,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 국제이주의 여성화, 초국가적 정체성, 젠더, 페미니스트 이주

1.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현재 대부분이 외국인 여성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해 이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해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건수는 총 36,204건으로 그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에 이른다. 과거 2000년까지 그 비율이 4%를 채 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그 비율적 증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중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건수는 총 28,163건으로 국제결혼 전체의 약 77%에 달한다. 이러한 자료는 우리나라에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형식에만 치우친 지원과 정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접근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국적별로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 후, 공간적 스케일을 좁혀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시·군별 국적별 지역적 분포와 이주과정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또한 세계화 시대에서의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의 재조명과 함께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역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의 활용이라는 함의를 가진다.

2) 연구방법 및 연구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수적 증가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에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를 조사하였고, 지역적 분포를 보기 위해 이를 지도화하였다.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우리나라 전체 시·군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특화계수(L.Q.)를 구하여 그룹화하였고, 특히 충북 지역은 토마스(Thomas)법을 사용하여 지역별 대표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을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4명과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러한 인터뷰 내용과 함께 2008년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한「2008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1]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자료를 활용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자「2008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의 연구책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혼중개업체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도 실시하였다. 끝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공간분포 및 정주패턴은 Arc GIS 9.2를 사용하여 지도화하였다.

표 1. 전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특화계수

시 · 도	2007~2008년 결혼이주여성 수(명)	주민등록인구 수(명)	특화계수(L.Q.)
서울특별시	11,513	10,200,827	1.0
부산광역시	2,963	3,564,577	0.7
대구광역시	1,844	2,492,724	0.7
인천광역시	3,158	2,692,696	1.0
광주광역시	1,244	1,422,702	0.8
대전광역시	1,382	1,480,895	0.8
울산광역시	1,176	1,112,407	0.9
경기도	12,848	11,292,264	1.0
강원도	1,618	1,508,575	0.9
충청북도	1,901	1,519,587	1.1
충청남도	2,984	2,018,537	1.3
전라북도	2,701	1,855,772	1.3
전라남도	2,955	1,919,000	1.4
경상북도	3,243	2,673,931	1.1
경상남도	3,736	3,225,255	1.0
제주도	646	560,618	1.0
전국	55,912	49,540,367	–

자료: 통계청,「2007~2008년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 편)」
통계청, 2008년 주민등록인구수

연구대상 지역인 충청북도는 해마다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이주자의 증가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2008년 현재 충북에 등록된 국제결혼이주자는 1,087명으로, 2000년 308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1,087명에 달한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특화계수(L.Q.)를 구해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과 충남 다음으로 충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특화계수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 않아 고도로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로만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연구대상으로서 충북지역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표 1).[2)]

2. 이론적 배경

1) 세계화(globalization)와 국제이주

세계화는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함께 시작되었다. 즉, 영국에서는 '대처리즘(Thatcherism)'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라는 이름으로 '탈(脫)규제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1989년 동구권의 붕괴로 세계경제의 유일 체제가 자본주의로 고착되면서 시장경제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시장 본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세계경제의 중심논리가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세계화는 노동시장을 불안정한 상태로 축소시키며, 빈익빈 부익부의 세계경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 국제무역의 성장과 함께 자본과 상품, 사람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김범수, 2007).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문화의 장소 간 이동은 상품과 서비스 형태로 국한되는 것만 아니라 노동과 이주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노동과 이주의 확대는 다수문화와 소수문화가 혼합되는 문화적 혼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지역 내부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면서 다수문화와 소수문화의 갈등, 소수문화의 다수문화로의 동화, 주류와 소수에 포함되지 않는 혼성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지역 내에 글로벌화 된 문화상품과 서비스는 다양한 민족문화의 전통과 공존하게 되면서, 민족문화의 네트워크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흔히 디아스포라(diaspora)로 일컬어지는 국경을 초월한 민족문화의 네트워크는 민족문화 정체성의 공유, 민족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 국지적 문화의 세계화 등을 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이용균, 2007).

세계화 현상과 국제이주 및 디아스포라의 증가는 필연적 인과관계 없이 개별적으로 등장한 현상이지만, 현재 공존하여 나타난다. 세계화는 변화된 초국가적 사회영역을 창출하고 국제이주 및 디아스포라에 대해 기회의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Cohen(1997)에 따르면, 세계화가 국제이주 및 디아스포라에 미치는 기회구조는 크게 세계시장에서 모국의 경제적 거래의 촉진자, 자유로운 국제적 이주증가와 네트워크 발전, 다문화·다민족·다언어적 세계도시의 출현과 이주노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양면적인 정체성 형성 및 사회적 정체성의 탈지역화를 들 수 있다(전형권, 2005).

한국에서는 해외 노동자 유입, 국제결혼 증대, 사업 및 관광관련 외국인의 유입이 증대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해외 노동자의 유입은 농촌의 소외와 혼혈아동 증대, 문화의 혼성과 지역 정체성 변화 등에 관한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

속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짐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이주이다.

인간이 국경을 넘어 지리적인 이동을 하는 국제이주현상을 설명하는 데 학계에선 서로 다른 개념, 전제, 준거 틀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론을 내놓고 있다. 예로, '신고전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적 관점은 이주 송출국(sending countries)과 수용국(receiving countries) 양국 간의 임금과 고용조건의 차이, 이주비용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을 수입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이해한다. 반면, '이주의 신경제학(new economics of migration)'적 관점은 이주 연구에서 단순히 노동시장만을 분석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다. 특히 이주현상을 가족단위의 문제로 고려하여 가족의 수입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생산 활동에 관련된 자본의 구속 요인(capital constraints)을 극복하기 위한 결정으로 본다. 이 두 이론은 개인적 또는 미시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구조적 또는 거시적 접근에 해당하는 '이중 노동시장이론(dual labour market theory)'과 '세계시스템이론(world system theory)'은 좀 더 거시적 차원의 집단적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미시적 차원의 이론들이 국제이주를 현대 산업경제의 구조적 요건에 연결 짓는 반면 거시적 차원은 이주를 경제적 지구화와 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시장 침투의 자연스런 결과로 이해한다(김경학, 2006).

2)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와 국제결혼이주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정보 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은 현대적 의미의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문화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충돌하고 혼합되는 '새로운 공간(new spaces)'을 창출하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문화가 급진적으로 탈지역화(delocalization)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매스미디어가 문화와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장소와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와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전통적인 시 · 공간 개념의 해체를 가져 왔고,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은 공동체 구성원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격을 변형시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이주와 지구적인 이동으로 사회적 관계의 탈공간화(despatialisation), 즉 주체성, 영토, 사회적 네트워크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김경학, 2006).

급속한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민족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고 있다. 종전에는 단순히 민족 간의 연결로만 바라보았으나, 이제는 국경을 초월한 민족 간 문화, 정보, 경제 등의 교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이다.

초국가주의가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 기존의 국제이주와 관련된 이론들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이주는 실제 다양한 조건과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신고전경제학이론에서는 노동비용의 차이와 효용에 초점을 두기에 한계를 보이며,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유입국의 흡인요인에 초점을 두기에 한계를 보이고, 세계시스템이론은 세계시장 구조의 변화에 의존하면서 국제이주를 설명하기에 한계를 보인다. 그에 반해, 초국가주의 관점은 민족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그 역할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설명할 수 있기에 주목 받게 되었다. 과거 전통이론이 주류사회의 입장에서 이주민의 동화(assimilation)를 강조하는 폐쇄적 성격을 띤다면, 초국가주의는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적 입장에서 초국경적 이주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최재헌, 2007).

초국가주의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이민이 발생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던 두 사회가 하나의 사회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국가를 벗어나는 초국경적 현상을 설명하는 점에서 세계화(globalization)개념과 유사하지만, 이민자들에 내재된 사회-공간적 구조, 사회 네트워크의 국제적 분산, 정체성 형성의 유연성 등을 다루는데 유용하다.

초국가주의에 대한 의미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각각을 살펴보는 것은 초국가주의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Vertovec(1999)은 초국가주의를 사회적 형태로서, 자의식의 유형으로서, 문화적 재생산 수단으로서, 자본의 이동 경로로서, 정치적 연계의 장으로서, 장소와 지역의 재구성으로 해석한다. Mitchell(2000)은 좁은 의미에서 초국가주의를 이주민들에 의해 국경을 초월한 이동이 사회, 경제, 문화적 연계성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따라서 초국가주의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을 시장에서 찾기보다는 이주자 자체에서 찾는 경향이 있으며, 이주자에 의해서 출신국과 정착국 사이에 연결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관심을 갖는다. 문화의 국제적 이동은 네트워크로서 연결되며 민족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있어 민족문화 자체의 특성보다는 민족문화가 사회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Mitchell, 2000; 이용균, 2007).

Basch *et al.*(1994)은 초국가주의를 이주자들이 모국과 정착국 양쪽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초국가주의가 오늘날 많은 이주자들이 지리적 · 문화적 · 정치적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적 장(social fields)'을 만들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이주자들은 흔히 국경을 넘나들며 가족, 경제, 사회, 종교,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Portes(1997)는 초국가적 이주자들은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 정치적 안전을 추구하고자 국가적 경계를 넘나들며 밀도 높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다른 문화에 어려움이 없이 적응하며, 경제적 · 정치적 · 문화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초국가적 연결은 이주자,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 그들이 거주하는 이중적 장소(localities)에 대해 경제적 · 사회문화적 · 정치적 영향을 서로에게 주고 있다(Portes, 1997; 이용균, 2007).

Kearney(1995)는 초국가주의를 세계화 개념과 비교하면서, 세계화 과정이 '하나의 국가'에서 발원하여 '다차원적인 지구 공간'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의미하는 반면, 초국가적 이동은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되 일방적 이동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국경을 넘는 이동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Kearney, 1995; 이영민 · 유희연, 2008).

Guarnizo and Smith(1998)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와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를 구분하여 후자는 세계화와 유사하여 특정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 거시 경제적 과정에 관심이 많지만, 전자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를 넘나들면서 형성하는 관계에 관심이 있는 초국가적 성격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는 거대한 이동력을 갖는 다국적 기업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맞물린 엘리트 집단의 국제적 이동과 같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초국가주의와 국제 이민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는 세계화에 의해 경제적 동기에 따른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등과 같이 노동자 계층의 국제적 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용균, 2007).

이처럼 초국가주의를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라는 각도에서 정의하는 경우, 세계화와 중복되지만

좀 더 제한된 범위를 갖는다. 세계화 과정은 주로 특별한 국가영토로부터 탈중심화되고 전 지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반면, 초국가적 과정은 하나 이상의 민족국가에 정박 내지는 초월한다. 세계화는 좀 더 추상적이고, 덜 제도화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발생하는 덜 집중적인 과정을 의미하나, 초국가적인 것은 다른 민족국가들과 헤게모니 경쟁을 함에 따라 민족국가의 문화적 · 정치적 기획에 관심을 요구한다. 초국가주의는 문화· 정치적 기획의 하나인 민족주의와 공명(共鳴)하게 되므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초국가적 과정은 세계화를 반영하지만 범위 상 훨씬 더 제한적이다. 초국가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정은 우선 특정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지만, 특정 국가의 정치 · 제도적 관행들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진다(전형권, 2005).

다양한 초국가주의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초국가주의란 다문화사회로 전개되면서 국경을 넘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네트워크가 크게 증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이주자의 이민과 정책은 본국과는 어쩔 수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고,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학습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며, 본국에서 습득한 오래된 습관을 버려야만 하는 '동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반면, 최근의 초국가 이주자(transmigrant)는 그들의 본국과 정착국에서의 가족, 경제, 사회조직, 종교, 정치적인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시다발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초국가주의에 대해 최재헌(2007)은 초국가주의를 다양한 국제이주의 유형과 국제이민을 유연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평가하며 지리적인 시각에서 초국가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기조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균(2007)은 초국가주의는 민족문화의 네트워크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정체성이란 맥락에서 동시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장점을 보이며, 초국가주의 접근은 민족문화 네트워크를 정치적으로는 국가적 영토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는 민족문화의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시장화란 측면에서, 그리고 정체성에서는 민족문화의 초국적 연결이란(탈영역화 된 민족문화 정체성)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공간적 이주가 물론 오늘날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시대별 국제결혼과 이주에 대한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는 사진신부(picture brides)로써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인들이 몇 장의 고국여성 사진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 자신의 배우자로 초청한 것, 즉 고국 땅의 여성도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멀리 하와이 또는 미국 본토로 건너간 경우를 가리킨다(한주성, 2007).

둘째, 전쟁신부(war brides 또는 military brides)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이들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여성을 가리키는데 이 유형은 혼인이주로서 인종 간 결혼인 국제결혼의 효시이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주가 아니라 가족재결합을 위해 남편을 따라가는 신부로 이해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된 것이 한국전쟁 후 미국남성과 한국여성들 간의 결혼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여성이 미군과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이주한 현상은 1962년 수립된 한국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루어진 전쟁고아, 입양, 유학 등 비이민형태의 이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는 서구에서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국가 간 이주를 부추기는 현상으로 중매기관이 상업화되고,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일부 여성주의 학자들은 제3세계 여성들을 경제적인 동기나 이주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위장결혼자로, 상업화된 국제중매기

관의 희생자로 또는 국제적 인신매매 조직의 희생자로 평가하기도 했으나 중남미 여성을 사례로 한 Schaeffer-Grabiel(2003)의 연구는 우편주문신부가 단순히 하층계급 출신의 희생자가 아니라 중간계층의 여성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 선택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넷째,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인터넷 주문신부(internet order brides 또는 cyber order brides)이다. 즉,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직접 만나 얼굴을 보고 상대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상의 결혼중개업체 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배우자에 대한 인적 사항,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원하는 배우자를 주문하는 형태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리핀, 베트남 여성 등과의 결혼을 주선하고 있다(김재련, 2007).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의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유입이며 그 외에 통일교 등 종교단체의 알선을 통한 국제결혼이나 국제결혼을 한 당사자의 개인적 소개를 통한 결혼, 이주노동자의 생활과정에서 만난 사람끼리의 연애결혼, 개인 브로커를 통한 결혼, 지방자치단체의 매개를 통한 결혼[3] 등이 있다.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말까지는 주로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미국인 남편을 따라 곧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므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적응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그 양도 많지 않다(송성자, 1974). 즉,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이 가난한 한국의 여성이 주로 미국 또는 일본으로 결혼이주를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국내에서 외국인과 결혼해 사는 것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연구도 활발히 시작되어 인권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계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연구는 주로 전국적 · 자치단체별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 · 지역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전라남도, 2003; 전북발전연구원, 2004; 경상북도, 2005). 학계의 연구는 사회복지학 및 인류학 그리고 여성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손은록, 2005; 신란희, 2005; 안현주, 2006; 임경혜, 2004)가 이루어지다가 김민정(2003)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필리핀 남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여성에 맞춰져 다방면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이혜경, 2005; 설동훈, 2005; 이용균, 2007; 정현주, 2007 등).

3) 국제이주의 여성화

이주와 젠더 연구의 최대 화두인 이주의 여성화란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 노동이동의 50% 이상이 여성 이주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국가 간 이주에 있어서 남편을 따라 이동하는 '동반이주자(tied movers)'로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이주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혜경 등, 2006). 즉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일어났던 과거의 이주과정에 반해 최근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이주과정을 주도하는 변화를 부각시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페미니스트 이주연구가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나 요즘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용어의 과도한 사용과 일부 무분별한 인용으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정현주, 2008).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노동력 이주의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두었으며, 결혼이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고,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적었다. 이는 직장을 찾기 위한 노동력 이

동이라는 남성이주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Bonney and Love, 1991; Fincher, 1993; 이희연 · 김원진, 2007). 그러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여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또는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기 위한 국제이주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자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최근에 와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이희연 · 김원진, 2007).

최근 지리학 분야에서는 여성이주자의 출신배경에 따른 다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 및 지역정체성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정주패턴에 관한 연구(이희연 · 김원진, 2007), 국제결혼이주를 초국가주의의 틀 속에서 논의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국제결혼을 야기하는 행위자로서 이해해 그 공간적 메커니즘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최재헌, 2007), 다양한 공간스케일에서 이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과 초국가적 민족문화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시도되었다(이용균, 2007). 또 농촌지역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과 사회적 제약 및 극복 방안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연구(정현주, 2007), 한국의 매스미디어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국제결혼 이주 현상을 농촌 중심의 문제로 재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초국가적 정체성에 관해 논의한 연구(이경진, 2008), 이주, 젠더, 스케일에 대한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을 제시한 연구(정현주, 2008), 경계를 가로지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정현주(2009)의 연구 등이 있다.

3. 우리나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적 변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이 일반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90년대 초 한국의 농촌총각과 중국 연변의 조선족 처녀 짝지어주기 운동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불과 2%도 안 되던 국제결혼건수가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로 더욱 활발해지고 1995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 후 꾸준히 증가하던 국제결혼건수는 1997~1999년에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현희(2007)는 당시 한국계 중국인 여성들의 위장결혼, 사기결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남성들의 피해 사례와 관련 범죄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또한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국적법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1998년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국적취득이 어려워진 것도 결혼 추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김현희, 2007). 그러나 무엇보다도 1999년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였던 IMF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제결혼건수는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3년 8.4%를 기점으로 하여 이후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10%를 상회하였고, 2005년에는 13.6%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경기회복과 함께 1999년 8월부터 국제결혼알선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불과 300여개였던 국제결혼업체수가 2006년 약 1,000~2,000개로 급성장하였다(이희연 · 김원진, 2007). 그러나 2006년에 들어오면서 혼인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8%가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 예고로 향후 중국교포 등의 국내 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외국인과의 혼인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2007년의 감소는 베트남 사람과의 국제 혼인 규제강화로 인한 현상으로 보았다(김현희, 2007). 2008년에도 감소 추세이지만 꾸준히 1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1990년대 초기의 국제결혼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드물었다. 그러나 1995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비율이 76.8%로 급격히 증가하여 외국인 아내를 맞아들이는 국제결혼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한층 가파르게 진행되어 일반적인 결혼의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2008년에는 약 80%에 달해 국제이주에 있어 외국인 여성이 주체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 변화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1990년대 초에는 미국과 일본인 아내의 비중이 컸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다. 1992년에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계 중국인 여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혼인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1990년대 후반 중국인과 위장결혼, IMF등 사회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인과의 결혼이 감소하고 대신 통일교를 통한 일본, 필리핀, 태국 등의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과의 혼인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인 아내의 경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참사랑을 바탕으로 '이상적 가족'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교차결혼을 통일교에서 추진하여 많은 일본인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해 왔다.

2000년대 이후에도 중국인 아내의 비중이 가장 크며, 그 외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몽골 등 저개발국가에서 온 외국인 아내의 수

표 2. 국제결혼건수와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건수 변화

년도	총 결혼건수(A)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혼인건수(B)	비율(%)(B/A)	혼인건수	비율(%)	혼인건수	비율(%)
1991	416,872	5,102	1.2	663	13.0	4,439	87.0
1992	419,774	5,534	1.3	2,057	37.2	3,477	62.8
1993	402,593	6,545	1.6	3,109	47.5	3,436	52.5
1994	393,121	6,616	1.7	3,072	46.4	3,544	53.6
1995	398,484	13,494	3.4	10,365	76.8	3,129	23.2
1996	434,911	15,946	3.7	12,647	79.3	3,229	20.2
1997	388,591	12,448	3.2	9,266	74.4	3,182	25.6
1998	375,616	12,188	3.2	8,054	66.1	4,134	33.9
1999	362,673	10,570	2.9	5,775	54.6	4,795	45.4
2000	334,030	12,319	3.7	7,304	59.3	5,015	40.7
2001	320,063	15,234	4.8	10,006	65.7	5,228	34.3
2002	306,573	15,913	5.2	11,017	69.2	4,896	30.8
2003	304,932	25,658	8.4	19,214	74.9	6,444	25.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72.2	9,853	27.8
2005	316,375	43,121	13.6	31,180	72.3	11,941	27.7
2006	332,752	39,690	11.9	30,208	76.1	9,482	23.9
2007	345,592	38,491	11.1	29,140	75.7	9,351	24.3
2008	327,715	36,204	9.0	28,163	77.8	8,041	22.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 편)」 각년도

표 3.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혼인건수 변화

(단위: 명)

년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몽골	중국	일본	미국	우즈베키스탄	기타	계
2000	1,174	77	–	240	64	3,566	819	231	43	731	6,945
2001	502	134	–	182	118	6,977	701	262	66	742	9,684
2002	838	474	–	327	194	7,023	690	267	183	702	10,698
2003	928	1,402	19	345	320	13,347	844	322	328	896	18,751
2004	947	2,461	72	324	504	18,489	809	341	247	911	25,105
2005	980	5,822	157	266	561	20,582	883	285	332	851	30,719
2006	1,117	10,128	394	271	594	14,566	1,045	331	314	905	29,665
2007	1,497	6,610	1,804	524	745	14,484	1,206	376	351	983	28,580
2008	1,857	8,282	659	633	521	13,203	1,162	344	492	1,010	28,163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 편)」 각년도

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더욱 다양해졌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특히 2002년 474건에 불과하던 베트남인 아내와의 혼인건수가 2003년에는 약 3배가량 증가하고, 2006년에는 10,128건에 이르러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베트남의 개혁 · 개방 이후 농촌지역 남성의 도시로의 이주증가에 따른 농촌지역의 성별 불균형으로 베트남의 최대 농촌지역인 남부 메콩델타(Mekong delta)지역 여성의 유입이 있었다(김현재, 2007).

몽골인 아내는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금은 다소 감소한 추세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여성들의 결혼이주는 노동이주가 쉽지 않고, 몽골 사회의 특수한 결혼 압박과 관련지을 수 있다. 또한 몽골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한국 기업과 제품의 진출 등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면서 또 하나의 '대안적 결혼형태'로서의 결혼 이주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김현미 등, 2008).

필리핀 여성과의 혼인건수는 2006년에 와서 크게 늘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 외국인 아내 출신국으로서 중국, 베트남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우편주문신부로 불리며 한국 남성과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결혼했던 것과는 다르게, 1990년대 초부터는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가 주도하여 필리핀인, 일본인, 태국인 여성들의 결혼 이주를 독려하였다. 필리핀에서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종교라기보다 이상적 가족과 세계평화를 위한 운동조직으로 이해되고 있어 거부감이 덜해 많은 신자가 분포되어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처음에는 종교적 목적으로 시작하여 후에는 결혼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들을 맺어주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기 바라는 일부 남성들은 신앙심과 상관없이 결혼을 위한 목적으로 통일교 종교 단체에 가입하여 필리핀과 일본, 태국 등지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있다(장흔성, 2007).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

충청북도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 전체 결혼이주여성의 시 · 군별 지역적 분포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울(11,513명)과 인천(3,158명), 부산(2,963명), 대구(1,844명), 대전(1,382명),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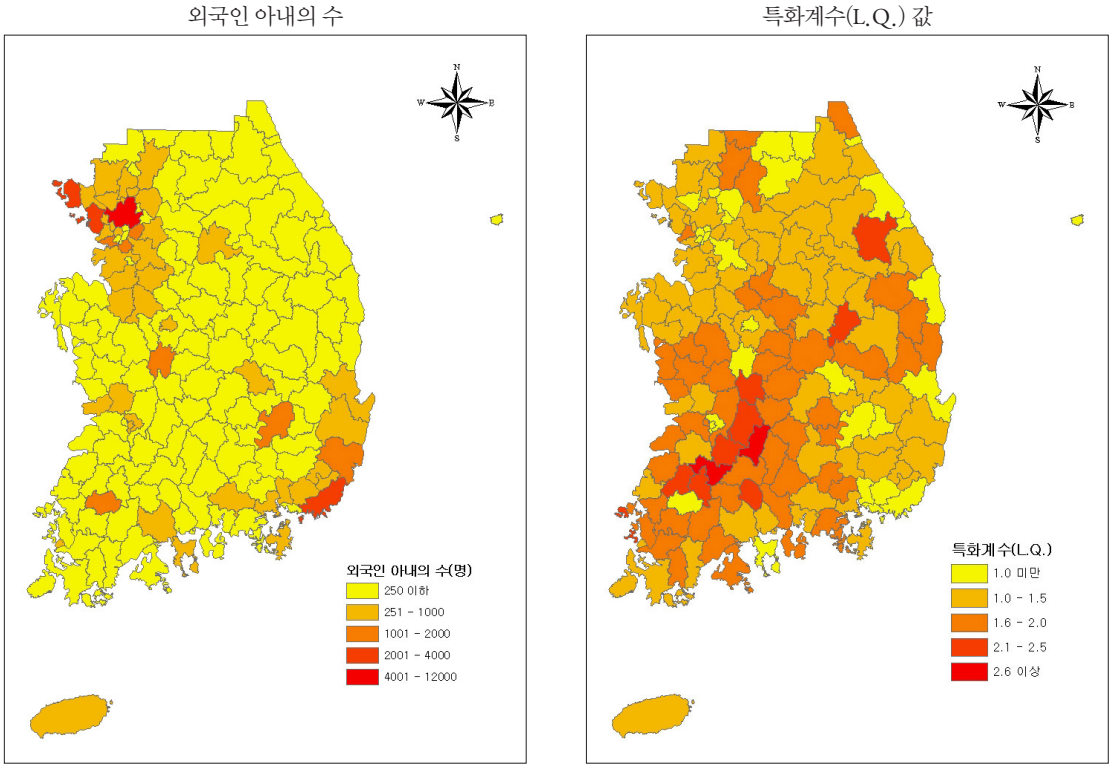

그림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시·군별 지역적 분포(2007~2008년)

(1,244명) 등의 대도시 지역에 결혼이주여성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주변 지역으로 경기도의 안산(1,178명), 수원(1,126명), 성남(1,038명), 부천(946명), 고양(860명), 시흥(672명) 등에 밀집해 나타나고, 평택(577명), 천안(572명), 화성(556명), 전주(532명), 청주(528명) 등의 지방 도시에도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는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농촌총각과 결혼해 농촌지역에 더 많이 거주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그 절대적인 수의 집중이 도시와 그 주변지역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결혼이주는 90년대 초부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시 저소득 근로자와의 결혼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도시 지역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저소득 근로자와 결혼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여성들 못지않은 경제적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특화계수를 시·군별로 지도화하여 나타내고 살펴보면 전남과 전북지역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특화계수가 높은 시·군이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남과 전북 지역이 대체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비특화된 시·군이 많이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그 차이가 뚜렷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군별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특화계수를 구해 그룹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4).

먼저, 특화계수 값이 2.6 이상인 Ⅰ그룹에는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두 지역만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인데다 지자체에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책[4]까지 벌이고 있어 특화계수 값이 높게 나타났다.

Ⅱ그룹은 특화계수 값이 2.1~2.5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금산군, 임실군, 신안군, 예천군, 장성군, 정선군, 담양군의 7개 군이 속했다. Ⅱ그룹에 속한 지역 모두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해당하여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이 많은 것으로 풀이하였다. 특화계수 1.6~2.0에 해당하는 Ⅲ그룹에는 구례군, 고창군, 보은군, 완주군, 보성군, 함평군, 봉화군 등을 포함한 43개의 시·군이 포함되었다. 몇몇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띠거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많았다. 도시지역인 곳도 안산시와 같은 공장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 포함되어 외국인 근로자와의 국제결혼이 많은 것으로 풀이하였다.

Ⅳ그룹은 1.0~1.5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고도로 특화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이 그룹에는 통영시, 고성군(경남), 고성군(강원), 가평군, 시흥시, 영덕군, 옥천군, 남해군, 연기군 등을 비롯한 72개 시·군이 포함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집중한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가 이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눈에 띈다. 끝으로 Ⅴ그룹은 1.0미만의 특화계수 값을 가진 지역으로 비특화지역에 해당한다. 이 그룹에는 군위군, 천안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삼척시, 원주시 등의 41개 시·군이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절대적인 수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의 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과 경기도 일대가 이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대체로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로 외국인 아내의 절대적 수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총각들이 주로 외국인 아내를 맞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서 결혼하는 부부 가운데 외국인 아내와 혼인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4.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시 · 군별 특화계수(L.Q.)

그룹	L.Q.	시 · 군
Ⅰ	2.6 이상	장수군, 순창군
Ⅱ	2.1~2.5	금산군, 임실군, 신안군, 예천군, 장성군, 정선군, 담양군
Ⅲ	1.6~2.0	구례군, 진안군, 고창군, 보은군, 완주군, 보성군, 함평군, 봉화군, 부안군, 영양군, 고령군, 의령군, 나주시, 산청군, 청양군, 곡성군, 영동군, 무안군, 공주시, 함안군, 성주군, 청송군, 괴산군, 화순군, 음성군, 포천시, 무주군, 부여군, 진천군, 고흥군, 남원시, 김제시, 하동군, 함양군, 철원군, 서천군, 보령시, 상주시, 강진군, 거창군, 의성군, 영암군, 논산시
Ⅳ	1.0~1.5	통영시, 고성군(경남), 고성군(강원), 가평군, 시흥시, 영덕군, 옥천군, 남해군, 연기군, 동두천시, 안산시, 단양군, 당진군, 영광군, 해남군, 정읍시, 진도군, 안성시, 양평군, 청원군, 김천시, 평창군, 태안군, 완도군, 양주시, 아산시, 장흥군, 익산시, 횡성군, 연천군, 창녕군, 평택시, 청도군, 합천군, 증평군, 사천시, 양양군, 제천시, 군산시, 파주시, 홍성군, 인제군, 순천시, 광주시, 안동시, 서산시, 경주시, 영천시, 홍천군, 영주시, 밀양시, 여주군, 김포시, 화성시, 문경시, 거제시, 예산군, 오산시, 인천광역시, 영월군, 이천시, 광양시, 제주시, 양산시, 충주시, 서울시, 진주시, 성남시, 부천시, 마산시, 목포시
Ⅴ	1.0 미만	군위군, 천안시, 울산광역시, 수원시, 삼척시, 원주시, 태백시, 광명시, 칠곡군, 하남시, 화천군, 남양주시, 의왕시, 포항시, 의정부시, 여수시, 양구군, 대전광역시, 울진군, 고양시, 김해시, 춘천시, 진해시, 광주광역시, 경산시, 구리시, 전주시, 부산광역시, 청주시, 용인시, 강릉시, 구미시, 동해시, 속초시, 안양시, 군포시, 창원시, 대구광역시, 계룡시, 울릉군, 과천시

4. 충북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

1)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

충청북도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를 시·군별로 지도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청주시(528명)에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분포하고 있고, 충주시(236명), 청원군(228명), 제천시(187명), 음성군(170명), 진천군(114명), 영동군(100명) 등에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충북의 최고 중심지인 청주시와 청주로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청원군, 도농통합시인 충주시와 제천시 등에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밀집하여 충청북도 내 결혼이주여성은 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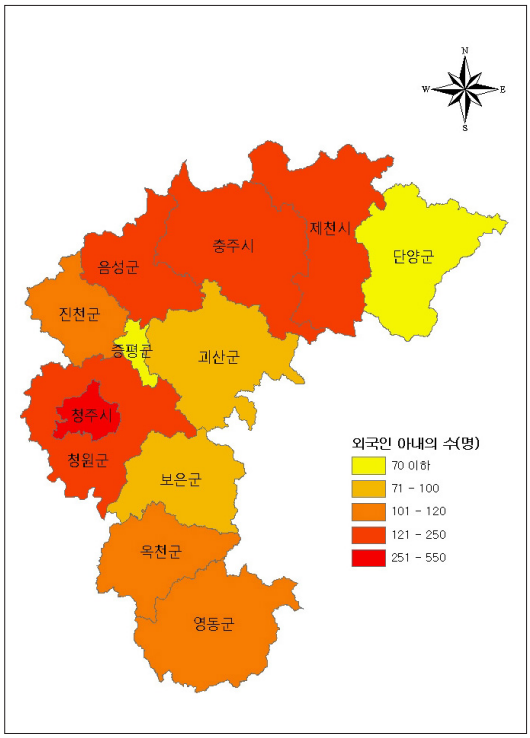

그림 2. 충북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 (2007~2008)

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지역적 분포 및 특성

토마스(Thomas)법[5]에 의해 충북 시·군별 결혼이주여성의 대표국적을 산출하여 6개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표 5). 먼저, Ⅰ유형은 중국,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대표되는 유형으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충북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유리하여 중국인 아내가 많고, 결혼중개업체와의 접근이 유리하여 베트남인 아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Ⅱ유형은 중국, 베트남, 기타, 몽골인 아내가 대표되는 유형으로 청원군이 해당한다. 청원군은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어 청주시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아내가 대표된다. 즉, 직접 만남이나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만난 경우가 많은 중국인 아내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 베트남, 몽골, 기타의 국적을 가진 아내가 다양하게 혼합되어 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유형은 보은군만이 해당하며, 베트남과 중국인 아내가 대표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벌이고 있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베트남인 아내와 절대적 수가 많아 충북 전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중국인 아내가 대표된다.[6] Ⅳ유형은 베트남, 중국, 기타 출신의 아내가 대표되는 지역으로 영동군과

표 5. 결혼이주여성의 대표 국적에 따른 시·군별 유형 분류

유형	대표국적	시·군
Ⅰ	중국, 베트남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Ⅱ	중국, 베트남, 기타, 몽골	청원군
Ⅲ	베트남, 중국	보은군
Ⅳ	베트남, 중국, 기타	영동군, 진천군
Ⅴ	중국, 베트남, 기타	옥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Ⅵ	베트남, 기타	단양군

진천군이 이에 해당한다. 영동군과 진천군은 산업단지가 비교적 많이 입지해 있는 농촌지역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오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기타 출신의 아내가 대표된다. Ⅴ유형은 중국, 베트남, 기타 출신의 아내가 대표되는 지역으로, 옥천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대전시, 청주시, 충주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중국, 베트남, 기타 출신의 아내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해 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평군의 경우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직접만남과 부모 형제 소개를 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Ⅵ유형은 베트남, 기타 출신의 아내가 대표되는 지역으로 단양군만이 해당된다. 단양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양군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지정해주어 더욱 적극적으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다. 단양군에서 지정한 결혼중개업체가 베트남인 여성과의 혼인 전문이기 때문에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이 많고 그 밖의 각 지역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오는 기타 출신의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7)]

5. 충북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 및 사회·경제적 특성

1)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적 분포는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방법 및 결혼동기 등의 이주과정 및 사회적 특성과 크게 연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특성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적 분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 충북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학력, 직업 및 소득수준 등의 이주과정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충북 결혼이주여성의 이주과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가장 많고, 아는 사람의 소개, 종교단체의 주선, 직접만남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높은 지역은 옥천군, 단양군, 음성군, 보은군 등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많은 농촌총각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는 사람의 소개나 직접만남의 경우는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등과 같은 도시지역이나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많았고, 종교 단체를 통한 결혼은 괴산군에 많았다.

결혼동기에 대해서는 '남편을 사랑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 '본국 가족 경제적 지원', '종교적 이유' 순으로 많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로 우리의 인식 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지역별로는 '남편을 사랑해서'라고 답한 경우는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등의 직접만남과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만난 경우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본국 가족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한 경우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단양군, 제천시, 옥천군 등에 많았다.

국적취득에 관련해서는 충북 결혼이주여성 중 약 70%가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충주시, 보은군, 청주시, 진천군 순으로 국적취득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조차도 40%가 되지 않았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

충북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의 어린신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40대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베트남인 아내의 경우 20대 이하의 어린신부가 약 70%에

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수준을 보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율이 2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괴산군, 청주시, 충주시 등에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산군의 경우 대졸이상의 아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를 통해 결혼해 고학력자가 많은 일본인, 필리핀인 아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반면, 초졸의 비율은 음성군, 옥천군, 단양군 등의 저개발국가에서 온 여성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보은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199만 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 지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은군을 비롯하여 영동군, 괴산군 등에서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빈곤층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월평균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남편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특히, 남편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인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은 앞서 살펴 본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 중국인 아내가 많은 청주시의 경우 남편이 제조업, 건설업,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베트남인 아내의 비율이 높은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등의 지역에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충북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직업은 대부분 전업주부이거나 미취업 상태로 밖에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도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약 70%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청주시, 증평군, 단양군 등에서 매우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동군의 경우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충북 평균보다 높았는데, 이는 영동군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과 농업종사자와의 결혼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6. 결론

세계화를 넘어 초국가주의가 각광받고 있는 오늘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은 지역과 관련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화'와 '초국가주의' 그리고 '국제이주의 여성화'라는 세 가지 큰 틀 속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설명하고, 그들의 지역적 분포를 국적별로 분석하였다.

먼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시·군별 지역적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다시 국적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국적별로는 결혼이주여성의 절대적인 수와 상대적 인구 비율의 지역적 분포를 각각 살펴보고, 이를 국적별 결혼 동기와 결혼방법 등의 이주과정 및 사회적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공간적 스케일을 좁혀 충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지역적 분포를 토마스(Thomas)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대표국적을 산출한 뒤, 6개의 유형으로 정리하고, 각 시·군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토대로 다시 분석하였다.

이는 국적별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적 분포를 토대로 하여 각각 사회·문화적 기본 욕구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주

1) 본 논문에서 참고한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는 2008년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45일에 걸쳐 충청북도 12개 시 · 군에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거치고, 설문지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주소 및 국적 등 인적사항을 파악한 연구로써, 본 논문에서 실시한 인터뷰 내용과 함께 충청북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 · 경제적인 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었다.
2) 특화계수(L.Q.)=(특정지역결혼이주여성의수/전국결혼이주여성의수)/ (특정지역총인구수/전국총인구수)로 구하며, 1(전국평균)보다 크면 클수록 특화되어 있다(한주성, 2006). 사용된 자료는 2008년 주민등록인구수와 2007~2008년 결혼이주여성의 수를 사용하였다.
3) 충남 보은군의 경우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3국의 조선족 및 고려인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알선 및 지원하였고, 경남 합천군수는 중국 길림성을 방문하면서 국제결혼을 '관 지원 민간주도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김재련, 2007).
4) 전북 장수군에 실제 거주하며 농 · 축산업에 종사하는 35~45세의 미혼 남성으로 국제결혼을 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순창군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계속해서 개정하며 지원을 벌이고 있다.
5) 위버가 발표한 작물 구성법을 수정한 토마스(D. Thomas)는 편차의 자승 합을 작물수로 나누지 않는 토마스법을 발표했다. 이것을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한주성, 2006).

$$\Sigma d^2=\sum_{i=1}^{n}\left(x_i-\frac{100}{n}\right)^2+\sum_{i=n+1}^{s}x_i^2$$

d: 최소의 인구조합구성비,
x_i: i번째 인구의 구성비
n: 조합을 구성하는 인구 수,
s는 분석대상 이외의 인구 수

6) 보은군은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7) 단양군에서 선택한 업체는 '두리안'으로 베트남 전문 결혼정보회사이기 때문에 단양군의 농촌 총각들은 베트남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단양군청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

참고문헌

경상북도, 2007,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김경학, 2006, 국제 이주와 인도인 디아스포라, 파주: 집문당.
김선아,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인 · 박수진(편), 2006, 도시해석, 서울: 푸른길.
김재련, 2007,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 · 김민정 · 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24(1), pp.122-155.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pp.219-254.
김현희, 2007, "현대의 다문화가족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민족연구 31, pp.6-49.
박경환, 2006, "디아스포라라는 거울, 민족이라는 담론, 그리고 초국가적주의의 부상," 문화역사지리 18(3), pp.133-139.
보건복지부,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 정책 방안.
석현호 · 정기선 · 이정환 · 이혜경 · 강수돌,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미래인력총서 31.
양편승, 2008, “신종교의 해외 전래과정에 대한 연구 –통일교의 미국 선교과정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9, pp.138-180.
윤형숙, 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파주: 한울아카데미.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pp.299-339.
이동연, 2006,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자본의 논리,” 문화과학 47, pp.64-89.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38(2), pp.189-219.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35-51.
이혜경 · 정기선 · 유명기 ·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pp.258-298.
이희연 · 김원진,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 여성 결혼이주의 성장과 정주패턴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15-33.
장흔성, 2007,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자산 다문화 가정,” 사회과학논총 6, pp.31-41.
장흔성, 2007, 경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형권, 2005, “초국가주의 관점에서 본 화교 디아스포라와 네트워크,” 대한정치학회보 13(2), pp.95-126.
정현주, 2007, “공간의 덫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53-68.
정현주, 2009, “경계를 가로지르는 결혼과 여성의 에이전시: 국제결혼이주연구에서 에이전시를 둘러싼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2(1), pp.109-121.
최재헌, 2007,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여성결혼이주와 결혼중개업체의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pp.1-14.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08, (2008)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한주성, 2006, 경제지리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한주성, 2007, 인구지리학, 파주: 한울아카데미.
황윤주, 2008, 결혼이민자 여성 농촌지역 유입과 ‘적응’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onney, N. and Love, J., 1991, “Gender and migrations: geographical mobility and the wife’s sacrifice,” *Sociological Review* 39(2), pp.335-348.
Castells, M., 2010,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Malden, MA: Wiley-Blackwell.
Cohen, R., 1997,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London: UCL Press.
Crang, P., Dwyer, C., and Jackson, P., 2003, “Transnationalism and the spaces of commodity cul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4), pp.438-456.
Dwyer, C., 2000, “Negotiating diasporic identities: young British South Asian muslim woma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3(4), pp.475-486.
Guarnizo, L. and Smith, M., 1998, The locations of transnationalism, in Smith, M. and Guarnizo, L.(eds.),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pp.3-34.
Kearney, M., 1995, “The local and the global: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4(4), pp.547-565.
Mahler, S. J. and Pessar, P. R., 2001, “Gendered geographies of power: analyzing gender across transnational space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7(4), pp.441-459.
Mitchell, D.,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Parreñas, R. S., 2001,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ortes, A., 1997,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4), pp.790-825.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ssen, S., 2003,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Ehrenreich, B. and Hochschild, A. R.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Schiller, N. G., Basch, L., and Blanc, C. S., 1995, "From immigrant to transmigrant: theorizing transnational migra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68(1), pp.48-63.

Zarembka, J. M., 2003, America's dirty work: migrant maids and modern-day slavery, in Ehrenreich, B. and Hochschild, A. R.(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pp.142-153.

교신 : 류연택,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43-261-2694, 팩스: 043-276-2693, 이메일: ytryu@chungbuk.ac.kr

Correspondence: Yeon-Taek Ryu,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52 Naesudong-ro, Heungdeok-gu, Cheongju, Chungbuk 361-763, South Korea, Tel: +82-43-261-2694, fax: +82-43-276-2693, e-mail: ytryu@chungbuk.ac.kr

최초투고일 2012년 11월 1일
최종접수일 2012년 11월 5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5, No.4, 2012(676-694)

The Regional Distribution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the Case of Chungcheongbuk-do, South Korea

Min-Young Kim* · Yeon-Taek Ryu**

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female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s by nationalities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s the regional distribution by nationalities, migration processe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Chungcheongbuk-do in South Korea. Regarding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female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using location quotient, this study seeks to categorizes cities and counties in South Korea into five groups. Furthermore, using Thomas method, this paper tries to stereotype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buk-do into six groups, in order to identify significant nationalities in each group. The concept of transnationalism refers to the recent phenomenon that transnational social networks are prominent, linking societies at the global scale, as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globalization. Transnationalism provides insight into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socio-spati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migrants, transnational social networks, transnational identities, cultural hybridization, and so on.

Key Words : female transnational marriage migrant, multicultural society, glob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neoliberalism, cultural hybridization, diaspora, transnationalism, feminiz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ransnational identity, gender, feminist migration

* Master, Major of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